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n abstract artwork. It features a dense, chaotic pattern of thin, golden-brown lines that appear to be drawn or etched onto a dark blue, textured surface. The lines are mostly vertical and diagonal, creating a complex, web-like structure that fills the frame. The overall effect is one of intense energy and complexity.

MASTERS SHOW Towards Change

OPERA GALLERY

MASTERS SHOW Towards Change

24 March - 18 April 2022

서문

오페라갤러리는 ‘Masters Show: Towards Change’라는 테마로 전후(post-war) 현대 미술 거장들의 대표작품 20여 점을 선별하여 전시합니다.

현대 미술은 ‘형식’의 진화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의 진화는 예술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점과 질문을 만들어내며 예술 근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자 급진적인 접근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질문과 발전은 현대 미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술의 영역을 제한하고 장르를 구분 짓던 시대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미적 기준의 주장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작업과 예술가를 탄생시켰고, 이것은 20세기 현대미술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의 작품은 세상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우려로부터 탄생하여 현대미술의 확장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본 전시는 저마다의 관점으로 예술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싸워온 현대 미술 거장 6인의 전시입니다. 이들은 현대 미술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신만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예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뒤뷔페(Dubuffet)**는 물질성과 실험에 바탕을 둔 다듬지 않은 거친 형태의 미술을 뜻하는 ‘아르 브뤼(Art Brut)’와 더불어 지배적인 서구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역설을 창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신을 다루는” 예술을 갈망했습니다. **아르통(Hartung)**은 순수하고 일관성 있는 ‘형태의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작품세계와 상(image)의 단순화를 바탕으로 가장 역동적이자 급진적인 추상화로 새로운 회화적 사고를 창조했습니다. **아펠(Appel)**은 작가 특유의 형태와 강렬한 색감을 사용하곤 했는데, 공동 설립한 코브라(CoBrA) 그룹의 일원으로 기존의 회화 관습에 저항하여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제스처로 형태를 해체 시켰습니다. **마티외(Mathieu)**는 동양 서예에서 파생된 장식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긴 붓을 이용하거나 곧바로 물감을 캔버스 위에 올리는 등 그의 손 끝과 캔버스 사이에서 빠르고 직접적이며 즉흥적인 제스처를 통해 나오는 독특한 추상 표현을 탄생시켰습니다.

리오펠(Riopelle)의 작품에는 무의식적 자동작용 ‘오토마티즘’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고 활기찬, 서정적이고 표현적인 몸짓이 담겨있습니다. 그는 뒤엇킨 여러 색의 물감과 질감을 이용해 이것들을 연주하듯 병렬적으로 배열하여 독특한 추상언어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연으로부터 끊임없는 영감을 받았는데,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의 작품 활동의 ‘유일한 참고 사항’으로 여겼습니다. **생팔(Saint Phalle)**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유의 감성을 표현했으며 그녀의 작품은 미(美)와 여성성 뿐만 아니라 폭력성, 도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은 그녀의 삶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서전적이며서도 환상적이며, 그녀가 가진 세계관과 삶에 대한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이 예술가들은 그들의 그림 화법과 예술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였으며, 그들만의 비전을 제시하며 회화의 형식적인 재구성을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사색 이상으로 작품을 보기 위해 그들 회화에 담긴 상징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술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이 예술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단순한 시각을 넘어 작품의 내막을 파악하며, 작가 개개인의 감성과 그들의 주변 세계를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 ‘Masters Show: Towards Change’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지닌 작품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들이 함축하는 형식적 고찰을 바탕으로 시각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질 디앙
회장 & 설립자
오페라갤러리 그룹

김윤주
디렉터
오페라갤러리 서울

Foreword

Opera Gallery is pleased to present *Masters Show: Towards Change*, with a selection of over 20 works by Modern and Post-War artists.

Modernity finds its origins in the evolution of form. This formal evolution allowed the development of new questions among artists, even in the most radical sense. These questions and developments by artists are an important part of Modern Art. They represent major changes within the 20th century, through the assertion of new aesthetic criteria that question their time but are also related to new apprehensions of the world and society.

The artists exhibited here, offer their vision of art according to their own sensitivity. **Dubuffet** created a paradox by rejecting the predominant Western culture, with Art Brut, which is based on materiality and experimentation. The artist was looking for an art that “addresses the spirit”. **Hartung** sought pure and coherent formal innovations in his work. He created a new pictorial thought based on a simplification of the world and the image, up to the most radical abstraction. **Appel** used great intensity in his forms and colours, in revolt against established pictorial conventions, he disfigured the form in a gesture that is intended to be direct and spontaneous, in connection with the CoBrA group of which he is the co-founder. **Mathieu** used a decorative style derived from oriental calligraphy, through a rapid, direct, and spontaneous gesture between the artist’s hand and the canvas.

Gilles Dyan
Founder and Chairman
Opera Gallery Group

Riopelle based his work on automatism and spontaneity, with a broad and vigorous, lyrical, and expressive gesture. He played on a tangle of colours and their juxtaposition. With the idea of celebrating nature, which he took as his “only reference”. **Saint Phalle**, for her part, based her work on her own experience, expressing a particular sensitivity, linked as much to violence and provocation as to beauty and femininity. Her work is both autobiographical and fantastical, playing on both her life and her imagination, on the image she had of the world and her life.

These artists sought to distinguish themselves by their pictorial style and their apprehension of art and the world, presenting a vision of their own that led to a pictorial and formal renewal.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ymbolism, to see beyond simple contemplation. It is necessary to perceive the work, to analyse it, to grasp the ins and outs of it beyond simple vision, to apprehend the sensitivity of each artist and their ways of seeing the world around them, considering the formal particularities of which they are a precursor.

Masters Show: Towards Change, seeks to offer visitors and collectors a visual and psychological experience based on the perception of works with diverse meaning, but also the formal contemplation they imply.

Yoonju Kim
Director
Opera Gallery Seoul

“미술은 재료에 뿌리를 두어야 하고,
영성은 미술의 언어로 구현되어야 한다.”

장 뒤뷔페

Towards Change

세계2차대전 이후 서유럽과 미국의 미술계에서는 추상주의 화가와 인물화 화가를 가릴 것 없이 표현주의 기법이 유행했다. 파리의 앵포르멜(Art Informel)과 원생미술(Art Brut), 그리고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등을 비롯한 이 시기의 다양한 사조들은 모두 “즉흥”의 표현적 잠재성, 즉 회화적 움직임들의 결과와 순간성의 창조적 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장 뒤뷔페의 말을 빌자면 원생미술이란 심상이나 감정을 날것 그대로 표현하는, 문명과 지성에 오염되지 않은 창조의 기법을 뜻한다. “나는 원생미술이 순수하고 원초적이며 가장 자연스럽게 진실된 미술적 기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¹ 이처럼 반문명적인 입장을 관철했던 뒤뷔페는 미술사의 해체를 주장했고 본능, 걱정, 기분, 폭력, 광기에서 가치를 보았으며 자연 및 유기적인 형태에 보다 가까워질 것을 강조했다.

뒤뷔페의 작품에서는 미술을 지배하는 고급문화적·미적 가치관에 대한 반향이 두드러진다. 그는 전통적인 기법에 반발하며 거친 방식의 자국 만들기 기법을 시도했고, 진흙, 모래, 자갈, 유리 및 실을 회화에 사용하는 등 재료 사이의 위계질서를 재배열했다. 이는 “관측 가능한 현실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어떻게 작품 안에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1950-60년대에 뒤뷔페는 “현실로 보이는 것이 정말 현실인지를 의심한다”² 는 화두를 중심으로 회화, 드로잉, 판화 작품을 만들다가 이후 조각 작품으로 전환하는데 그에게 조각은 드로잉을 3차원 공간으로 확장시키는 것과 같았다. 그래픽적인 요소가 점차 강해지면서 처음에는 하나의 생물체였던 것이 토テム을 닮은 납작한 입체적 형태들을 통해 정교한 광경으로 펼쳐진다.

반체제적인 작가로서 뒤뷔페는 스스로의 작품을 끊임없이 의심했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수많은 재발명을 거쳤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작품세계가 거친 역동적 변화를 요약한다. 다채로운 색으로 이루어진 1940년대 초반의 회화는 곧이어 석고, 시멘트, 타르, 깎아낸 아스팔트 등을 사용한 획기적인 작품들로 이어졌는데, <Haute tête en pomme de terre>에서 그는 현실 속 식물과 광물의 모습을 탐구하며 한 명의 지질학자처럼 자연적 형태의 유기적 재현을 모색한다. 우를루프 시기는 뒤뷔페의 작가생활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가장 다작했던 시기인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Élément bleu XII>이 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특유의 즉흥적인 검은 선 드로잉을 3차원의 공간에서 재현하면서 현실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천진하고 본능적인 미술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로 뭉친 CoBrA(1948-1951년 동안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전위미술 운동) 화가들은 합리에 기반한 딱딱한 아카데미적 관습들이 즉흥적이고, 유쾌하며 제스처적인 작품들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믿었는데, 운동의 이름은 코펜하겐(Co), 브뤼셀(Br), 암스테르담(A) 등 각 작가들의 고국의 수도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 중 특히 카렐 아펠은 20세기 미술에서 인류 공통으로 드러나는 원시적, 무의식적, 아동적, 소외계층적 요소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어린이들의 그림은 내가 고전적인 미술 교육이 학습시켰던 것들에서 벗어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그들의 그림은 내게 한 줄기의 상쾌한 바람과도 같았다.”³ 뒤뷔페의 원생미술과 호안 미로의 강렬한 삼원색에서 영감을 받은 아펠은 거친 붓질의 사용과 함께 두꺼운 임파스토로 덮인 회화 작품을 그렸다.

아펠은 1950년대 후반을 뉴욕에서 보냈는데 이 시간은 동물적이고, 반미학적이며 과감한 표현으로 그를 내몰았다. 샘 프랜시스, 잭슨 폴록, 윌렘 드 쿠닝, 프란츠 클라인 등의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회화는 야성과 격한 감정이 가득 찬 그림으로 전환기를 맞는다. 아펠은 자신의 예술적 한계를 시험하면서 추상과 구상을 오가기도 했다.

¹ Rich BURLINGHAM. *Worlds beyond My Window: The Life and Work of Gertrude McCarty Smith*.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21, p. 137.

² Shira WOLFE. *Drawings Expanding into Space. The Sculpture of Jean Dubuffet*. (online). <https://magazine.artland.com/jean->

[dubuffets-sculptures-drawings-expanding-into-space/](#) (Page consulted on February 5, 2022).

³ Alan BOWNESS. *Karel Appel: Paintings 1980-85*, Bristol, Arnolfini Gallery, 1986, p. 19.

“나는 야만시대의 야만인처럼 그림을 그린다”⁴ 고 말하며 캔버스에 물감으로 공격하듯이 달려들었던 그에게 동물을 그리는 것은 지극히 직감적인 선택이었다. <Composition>, <Blue Bird> 및 <Two Heads>에 등장하는 화려한 동물들은 천진하고 어린아이같은 원생미술 정신의 현신과도 같다. “내 그림에는 인위적인 노력이 사용되지 않는다. 내 그림은 큰 외침이자 발가벗은 알몸과도 같고, 어린아이 혹은 우리에게 가둔 호랑이와도 같다.”⁵

독일계 프랑스 화가 한스 아르통에게 추상이란 완전히 새로운 표현의 방식이었다. 보다 직접적인 이 표현법은 그에게 인류에게 새로 공개된 언어처럼 다가왔다. 아르통은 휘젓기, 긁어내기, 끄적이기 등으로 이루어진 급진적 시각 언어를 창시하며 물질과 빛, 그리고 영혼을 창조하는 근원적인 동력들의 힘과 항상성을 끌어안는 데 성공했다. 다양한 매체와 급진적인 기법을 도입했던 그는 즉흥과 의도의 절묘한 균형을 이루면서 그의 상징과도 같은 캘리그래피적 회화를 완성했다.

<T1963-U22>는 아르통의 작품세계가 중요한 전환기를 거치던 시점에 그려진 그림이다. 1960년대에 그는 회화의 표면에 즉흥적인 터치를 직접 가하는 방식을 실험했고, 속건성 아크릴 물감과 비닐페인트를 사용하는가 하면 갈퀴, 금속 청소솔, 올리브나무 가지 등으로 표면을 긁으면서 무궁무진한 움직임의 모색했다. 회화의 표면은 인그레이빙 판화처럼 파여 있는데 여기서의 날뛰는 듯한 움직임은 그가 어릴 적 자연 속에서 보냈던 경험과 직결되어 있다. 급작스럽게 폭발하는 날카로운 선들과 맹렬히 움직이는 파란색과 황동색은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소환해낸다.

“어린아이들이 끄적여 놓은 듯한, 일종의 번개를 닮은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선의 속도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순간을 포착하려는 욕구에 눈을 뗐다. 이 그림들을 통해 나는

즉흥에도 긴박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⁶ 움직임에 기반한 그의 서정적인 추상화는 금세 신진 표현주의 화가들의 선봉이 되었다.

하지만 아르통은 단 한 번도 특정 운동이나 화풍에 소속된 적이 없다. “추상주의는 세계대전 후의 표현주의, 서정추상, 앵포르멜 및 타시즘의 영향을 받은 직감적이고 폭발적이고 혼란스러운 회화, 그리고 절제, 정확, 체제에 기반한 기하학적 추상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아르통은 이를 그저 편의에 따라 분류한 이분법적 체제로 보았고 여기에 속하는 것을 거부했다.”⁷

조르주 마티외는 추상미술이 움트던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 동안 유럽과 미국 양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화가였다. 액션페인팅의 선조인 마티외는 몬드리안의 데 스틸과 피카소의 큐비즘에서 기인한 유럽의 기하학적 추상과 형태적 엄격함을 거부하며 자유로운 창작의 흐름을 소화해낼 수 있는, 보다 느슨하고 서정적인 시각언어를 개발한다.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한 지역에서 이름을 따온 그의 작품 <Mygdonie>는 추상적인 붓질을 통해 어떤 은밀한 종교의 안개 위로 부유하는 복잡한 건축물을 그려낸 듯하다. 흑백의 기하학적 형태들은 서로에게 개입하는 수직과 수평의 구조물을 세우고, 여기에 초록색과 빨간색의 터치가 가미되면서 즉흥적이면서도 기호적인 그림을 완성한다. 작가 피에르 드에는 1971년에 이렇게 썼다. “서정추상주의의 20 년 역사 동안 마티외가 밟아온 길에서 이토록 회화의 광채와 전반적 균형감이 일정했던 시기는 없었다. 그림 한 점 한 점이 축복으로 다가온다.”⁸

앙드레 말로는 그를 “서양의 서예가”⁹ 라고도 불렀는데 마티외는 관중 앞에서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공연을 여러 차례 열었고, 이는 이브 클라인이 “살아있는 붓”으로

펼친 공연을 몇 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마티외는 자신의 공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일종의 최면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 정신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을 진공 상태처럼 깨끗이 비우려 안간힘을 써야 한다.”¹⁰ 원시적 에너지와 함께 결단력 있으면서도 자유분방한 서예를 선보이는 작품 <Li Duan>과 <Trigaudin>은 그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 담은 듯하다. 과감하면서도 통달의 경지에 이른 빨간색과 노란색의 붓질은 요란하고, 환희롭고, 거리낌없는 표현주의로 캔버스 위에 폭발한다.

당대 최고의 캐나다 추상화가로 널리 손꼽히는 장 폴 리오펔은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조안 미첼과의 관계 속에서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 자연 그리고 인상주의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지녔던 그들은 추상주의에 대해 열정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이는 두 화가가 각자의 독보적인 표현주의 화풍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리오펠의 독창적이고 다원적인 회화는 서정추상부터 일종의 조각난 풍경화까지 이어지는 넓은 범주를 다루었다. 자신의 작품을 유화 조각품이라고 곧잘 부르기도 했던 그는 재료를 즉흥적으로, 또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을 무엇보다 사랑했다. 물감을 튜브에서 바로 캔버스 위로 짜내면서 그림을 그린 후, 나이프로 빛, 색깔, 질감, 움직임 등을 표현하면서 임파스토가 모여 만든 화려한 색채의 모자이크화를 점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그의 기법이었다.

특유의 두꺼운 붓질로 밀어낸 임파스토는 그의 역동적인 회화의 상징과도 같은데, 강인한 생명력이 가득한 <Two Shinnebock Whalers>와 <Untitled> 두 작품에서 리오펔은 자연의 끝없는 힘과 자유를 포착해냈다. 리오펔은 6천 점이 넘는 회화, 조각 및 기타 작품들에 걸쳐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보였고, 방대한 양의 작품을 만들었음에도 이들이 그가

지녔던 표현주의 철학과 실천의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는 데 끝난다는 것은 깊은 아쉬움을 자아낸다.

끝없는 상상력과 천진난만한 작품으로 알려진 니키 드 생팔은 유럽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의 교류가 빚어낸 또 한 명의 작가이다. 환상 속 동물을 닮은 그녀의 발랄한 조각품들은 무의식적이고 유아적인 충동과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한다. 그녀의 작품이 취하는 선명한 색채, 과감한 아상블라주, 무한한 긍정과 장난스러운 동작들은 관객을 새로운 현실로 이끈다. 누보레알리즘 운동이 이름 그대로 “새로운 현실”을 추구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번 전시가 선보이는 독보적인 작품들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활짝 펼치도록 요구하며 새로운 상상의 공간, 새로운 현실로 우리의 손을 잡아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상상,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까닭이다.

샤즈 둘랑

⁸ Georges Mathieu exhibition at Galerie Templon. (2018). (online). https://georges-mathieu.fr/en/2018/09/georges-mathieu-exhibition-at-galerie-templon/ (Page consulted on February 5, 2022).

⁹ Georges MATHIEU, *Mathieu, 50 Ans de Création*, Paris, Hervas, 2002, p. 9.

¹⁰ Georges MATHIEU, *From the abstract to the possible — Foundations for an exegesis of western art*, Ed. Of the Circle of Contemporary Art in Zurich, 1959, p. 39.

«Art must be born from the material and spirituality must borrow its language.»

Jean Dubuffet

Towards Change

In the period following World War II, there was a widespread use of expressionist practices among both abstract and figurative artists working in Western Europe and the States. Various new movements springing up in Paris (Art Informel and Art Brut) and in the United States (Abstract Expressionism) were founded on the expressive potential of improvisation, the painterly gesture and creative spontaneity.

According to Jean Dubuffet, Art Brut was the raw expression of a vision or emotions, not tainted by civilization and intellectualism. “It is my belief that only in Art Brut can we find the natural and authentic processes of artistic creation in their pure and elementary state.”¹ Taking an anti-cultural approach, the artist advocated for a deconstruction of art history. He placed a premium on instinct, passion, mood, violence and madness and called for a closer proximity to nature and organic forms.

Dubuffet’s work is marked by a rebellious attitude toward prevailing notions of high artistic culture and beauty. Breaking from tradition, Dubuffet began experimenting with rough mark-making methods and incorporating mud, sand, gravel, glass and string into his paintings, thus creating a new hierarchy of materials. How can you represent a world that is beyond objective reality in a work of art?

In the 1950’s and ‘60’s, Dubuffet focused on “questioning realities that one had believed to be reality”² through paintings, drawings and prints before switching to sculpture, which for him was drawing expanding into space. His increasingly graphic style transforms single creatures into intricate scenes depicting flat, totemic sculptural forms with black contours. The works in this exhibition represent the

dynamic scope of Dubuffet’s career as a non-conformist whose artistic practice underwent constant questioning, challenging and reinvention. His brightly coloured paintings from the early forties were soon followed by innovative works in plaster, cement, tar and carved asphalt. In *Haute tête en pomme de terre*, the artist explores the organic representations of natural forms like a geologist, looking into the vegetable and mineral compositions of reality. *Élément bleu XII* is the most symbolic work from his Hourloupe cycle, the longest and most prolific of his career. Dubuffet brought his spontaneous black line drawings to life by expanding their presence spatially.

United by a shared interest in naïve and intuitive art, the CoBrA artists – a European avant-garde movement active from 1948-1951, with its name taken from the initials of the members’ home countries’ capital cities: Copenhagen (Co), Brussels (Br), Amsterdam (A) – also believed that rational and rigid academic forms should give way to spontaneous, playful and gestural works. Karel Appel, in particular, was drawn to the universally human in twentieth century art: the primitive, the unconscious, the child and the outsider. “Children’s drawings gave me the impetus I needed to free myself from the things I’d learnt during my classical education. They were like a gust of fresh air.”³ Inspired by Jean Dubuffet’s Art Brut and Joan Miró’s vivid primary colours, Appel used violent brushwork to create thick impastoed canvases.

Appel’s time in New York in the late 1950’s propelled him towards a creaturely, de-aestheticized, bold expressivity. The Abstract Expressionists Sam Francis, Jackson

¹ Rich BURLINGHAM. *Worlds beyond My Window: The Life and Work of Gertrude McCarty Smith*. Jackson,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21, p. 137.

² Shira WOLFE. *Drawings Expanding into Space. The Sculpture of Jean Dubuffet*. (online). [https://magazine.artland.com/jean-](https://magazine.artland.com/jean-dubuffets-sculptures-drawings-expanding-into-space/)

[dubuffets-sculptures-drawings-expanding-into-space/](https://magazine.artland.com/jean-dubuffets-sculptures-drawings-expanding-into-space/) (Page consulted on February 5, 2022).

³ Alan BOWNESS. *Karel Appel: Paintings 1980-85*, Bristol, Arnolfini Gallery, 1986, p. 19.

Pollock, Willem de Kooning and Franz Kline had a direct influence on Appel's transition toward a wildly expressive, emotionally charged painting style. Pushing his artistic practice to extremes, he was often shifting between abstraction and figuration.

Attacking the canvas with splashes of paint, "I paint like a barbarian in a barbarian age"⁴ for Appel, painting animals was an instinctual act. The vibrant, colourful creatures depicted in *Composition*, *Blue Bird* and *Two Heads* embody the naive childlike spirit of Art Brut. "I never try to make a painting. It is a howl, it is naked, it is like a child, it is a caged tiger."⁵

For the French-German artist Hans Hartung, abstraction is a completely new means of expression, a new human language, more direct. He created a radically new visual language of swirls, scratches and scribbles, by reconciling the energy and constancy of the forces which create matter, light, and spirit. Creating a dialectic between spontaneity and control, Hartung used a variety of new media and radical techniques to create his signature calligraphic paintings.

T1963-U22 was painted during a period of profound transformation in Hans Hartung's work. In the 1960's, he improvised directly on the canvas, experimenting with fast-drying acrylic and vinyl paints, as well as scraping techniques using rakes, iron brushes and olive tree branches, in pursuit of gestural freedom. Hartung incises the pictorial surface like an engraving. The frenzy of incisions is directly linked to the artist's childhood experience with nature. The sudden explosion of sharp-edged

lines, fierce blues and coppers, takes the form of a lightning storm.

"My childish flashes of lightning gave me a sense of the speed of the line, the desire to seize the instant. They made me aware of the urgency of spontaneity."⁶ With his gestural approach to painting and lyrical approach to abstraction, he quickly emerged as a leader for the emerging expressionist artists.

However, Hartung never belonged to a particular movement or style. He "refused to choose between two simplistic visions of abstract art: on one side, eruptive and chaotic painting, based on pure intuition, combined with the expressionist, gestural, lyrical, informal and Tachiste tendencies of Post-War painting; and, on the other, control, precision and systems, whose notions belong more to the realm of Geometric Abstraction."⁷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Georges Mathieu played a major role in the beginnings of abstract art in the late 1940's and early 1950's. Rejecting the formal rigour of European geometrical abstractions launched by Mondrian's De Stijl and Picasso's Cubism, a precursor of Action Painting created a more loose and lyrical visual language aimed at free-flowing creative expression.

The painting *Mygdonie* refers to an ancient region in former Macedonia. The abstract brushwork highlights a central, architectural complex hovering against an esoteric fog. The black and white geometrical forms create an interplay of vertical and horizontal structures, punctuated by accents of green

and red, creating a spontaneous yet symbolic composition. In 1971, the writer Pierre Dehayé said: "In the twenty years since lyrical abstraction began, never before has the artist attained this uniformity of luminosity and overall balance. Each painting is a celebration."⁸

The flamboyant "Western calligrapher"⁹, as André Malraux called him, painted large canvases in front of live audiences years before Yves Klein's 'living brushes'. During his performances, Mathieu described "needing to be in a trance-like zone: it is both a concentration of psychic energies as well as the most total state of vacuousness possible"¹⁰. The works *Li Duan* and *Trigaudin* emanate this primal energy and decisive, free calligraphy. The bold virtuoso red and yellow strokes explode across the surface in a loud, ecstatic, fearless expressionism.

Regarded as the leading Canadian abstract painter of his era, Jean Paul Riopelle was largely influenced by his relationship with the American Abstract Expressionist Joan Mitchell. Their passionate dialogue on abstraction, nurtured by their shared interest in nature and Impressionism, helped shape their singular vision of expressionism.

Riopelle's inventive and eclectic painting practice ranged from lyrical abstractions to fractured representations of landscapes. The artist often referred to his paintings as oil sculptures. More than anything, he loved direct and spontaneous contact with the material. After painting directly from the tube, Riopelle began using a palette knife to express light, colour, texture and movement, gradually

transforming the canvas into a colourful play of impastoed mosaics.

Thick impasto brushstrokes became a signature element of his energised compositions. *Two Shinnebock Whalers* and *Untitled* are both brimming with vitality and captured the endless freedom and energy of nature. Experimentation remains at the heart of Riopelle's immense body of over six thousand paintings, sculptures and other creations, and yet only gives us a glimpse into the immensity of his expressionist mind and reality.

The cross-cultural artistic dialogue between Europe and America continued with the imaginative and childlike works of Niki de Saint Phalle. These exuberant fantastical figures emphasise the free expression of the subconscious, childlike impulses and emotions. The bright colours, bold assemblages, carefreeness and playful gestures invite the viewer into a new reality (evoked by the name of French movement Les 'nouveaux réalistes' or 'new realists').

The unique pieces of art in this exhibition challenge us to expand our minds and bodies, ultimately granting us access to a new imaginative space, a new reality. Moving towards new ideas, new images and a new conception of the world allow us to move towards change.

Chase Doolan

⁴ Paul LASTER. (2017). *Karel Appel and the Influence of Outsider Art*. (online). <https://whitehotmagazine.com/articles/karel-appel-influence-outsider-art/3796> (Page consulted on February 5, 2022).

⁵ Alfred FRANKENSTEIN. *Karel Appel*, New York, Harry N. Abrams, 1980, p. 52.

⁶ *Passions...Passions*, Giacometti, Soulages, Murakami. (2021). (online). <https://www.sothebys.com/en/docs/pdf/pdf-catalogue->

[collection-passion-passions-compressed.pdf](#) (Page consulted on February 5, 2022).

⁷ Matthieu POIRER. (2018). Hans Hartung. *A Constant Storm. Works from 1922 to 1989*. (online). https://static.perrotin.com/presse_expo/press_release_3224_0.pdf?v=1515693159 (Page consulted on February 5, 2022).

⁸ *Georges Mathieu exhibition at Galerie Templon*. (2018). (online). <https://georges-mathieu.fr/en/2018/09/georges-mathieu-exhibition-at-galerie-templon/> (Page consulted on February 5, 2022).

⁹ Georges MATHIEU, *Mathieu, 50 Ans de Création*, Paris, Hervas, 2002, p. 9.

¹⁰ Georges MATHIEU, *From the abstract to the possible — Foundations for an exegesis of western art*, Ed. Of the Circle of Contemporary Art in Zurich, 1959, p. 39.

Works

장 뒤뷔페

Jean Dubuffet

“예술의 진정한 기능은 정신적 패턴을 바꾸는 것...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The real function of art is to change mental
patterns... making new thought possible.»



장 뒤뷔페

1901-1985

장 뒤뷔페는 1901년 프랑스 르아브르의 한 와인상 가족에게 태어났다. 화가이자 조각가로 활동한 뒤뷔페는 처음에는 와인 주조 일과 작가 활동 사이를 오가다가 1942년에서야 미술에 전업한다. 1918년에는 명성높은 파리의 줄리앙 아카데미에 취학했으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의 커리큘럼이 지나치게 고지식하다고 판단했고 아카데미를 떠나 독학하며 시, 음악과 언어에 심취했다. 뒤뷔페는 1985년 향년 83세로 세상을 떠났다.

뒤뷔페는 세계대전 직후의 미술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개척자 중 하나였다. 그의 작품이 선보였던 반윤리적·반문화적 지향점들은 철저히 의도된 것이었고 기존 확립된 미술의 개념들에 대안을 제시했다. 뒤뷔페는 어린이들의 그림, 무의미한 낙서, 공공장소의 그래피티는 물론이고 교도소 재소자들과 정신질환 환자들이 그린 그림에서도 예술적 가치를 보았다. 그는 이러한 그림들을 수집해 작품의 영감으로 삼았다. 뒤뷔페는 이 그림들을 진실된 예술로 보았고, 이들이 예술의 또 다른 형태라고 생각했으며 아르 브뤼(Art Brut) 즉 원시미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뒤뷔페의 작가생활 동안 그의 스타일과 기법은 믿기 힘들 정도로 큰 변화들을 거듭했는데 이는 사물을 보거나 해석하는 방법에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고, 그는 개별 작품을 만들 때 이를 어떤 연작 혹은 시기의 일부로 보았다. 뒤뷔페의 초기 작업은 원시미술 외에도 물질성의 탐구에 기인했는데, 이는 앵포르멜 운동에 참여했던 전후 프랑스 화가들을 사로잡은 화두이기도 했다. 1960년대 초 그는 극도로 독창적인 새로운 그래픽적 스타일을 선보이는데, 이를 “우를루프”라고 명명하며 그가 말았던 주요 공공미술 작품 다수에 차용했다. 말기에 그는 작업 초반에 보였던 즉흥적인 이미지로 돌아가나 과거와는 다르게 화려한 색채를 사용했다. (Sites 시기)

뒤뷔페의 회고전은 암스테르담 라익스뮤지엄(2017),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2017 및 1966), 토미 오타케 연구소(2009), 구겐하임 빌바오(2003), 퐁피두 센터 (2001),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1981 및 1966), 테이트 런던 (1966), 팔라초 그라시(1964), 파리 장식미술관(1961) 및 레버쿠젠 모스브로히현대미술관(1957)을 포함한 다수의 미술관에서 열렸고 이 중 1980년 독일예술원의 전시는 빈 현대미술관으로 순회했으며, 1962년 뉴욕 MoMA의 전시는 시카고 미술관으로 순회했다. 뒤뷔페의 작품은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Jean Dubuffet

1901-1985

Born to wine merchants in 1901 in Le Havre, France, painter and sculptor, Jean Dubuffet transitioned between winemaking and art until fully dedicating himself to his creative practice in 1942. In 1918, he attended the acclaimed Academie Julian in Paris but quickly found the academy too rigid, and left to study independently immersing himself in poetry, music and language. Jean Dubuffet died aged 83 in 1985, in Paris, France.

Jean Dubuffet was one of the most radical renewers of art in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His work represented a transgressive, willfully anti-cultural agenda, posited as an alternative to the established concepts of art. He saw artistic value in children’s drawings, random doodles, graffiti in public spaces, as well as works by prisoners and mentally ill patients. Dubuffet collected such works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his own art. For him, these works were the expression of a genuine, alternative form of art, which he termed ‘Art Brut’ - or ‘raw art’. His artistic career is characterised by extraordinary fluctuations in style and technical approaches reflecting his belief that there is no single way of seeing or interpreting the world, thus creating his works as parts of distinct, self-contained series or cycles. His early work was influenced by that of Art Brut, but it was also shaped by the interests in materiality that preoccupied many post-war French artists associated with the Art Informel movement. In the early 1960’s, he developed a radically new, graphic style, which he called “Hourloupe”, and would deploy it on many important public commissions. In his later years, he will revert back to the spontaneous imagery of his earlier years but this time with vibrant colours (“Sites” cycle).

Major solo retrospectives of Jean Dubuffet’s work include Rijksmuseum, Amsterdam (2017); Stedelijk Museum, Amsterdam (2017, 1966); Instituto Tomie Ohtake, São Paulo (2009); Guggenheim Bilbao (2003);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2001); Guggenheim Museum, New York (1981, 1966); Akademie der Künste, Berlin (1980) which travelled to Museum moderner Kunst, Vienna and Josef Haubrich Kunsthalle, Cologne; Tate, London (1966); Palazzo Grassi, Venice (1964);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1962) travelling to Art Institute of Chicago;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1961); and Schloss Morsbroich, Leverkusen, West Germany (1957). His work is held by almost every major museum in the world.

Petit bouquet de fleurs

June 1943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Oil on canvas

55 x 46 cm | 21.6 x 18.1 in

PROVENANCE

Galerie René Drouin, Paris, France

Galerie Beyeler, Basel, Switzerland & Galerie Jeanne

Bucher, Paris, France

Rudolf Indlekofer, Basel, Switzerland

Landau Fine Art, Montreal, Canada

Private collection, Switzerland

EXHIBITED

Martigny, Fondation Pierre Gianadda, *Dubuffet*, 1993,

p. 27, no. 3, ill. in colour

LITERATURE

Max Loreau, *Catalogue des travaux de Jean Dubuffet*,

Fascicule I : Marionnettes de la ville et de la campagne,

Jean-Jacques Pauvert Publishing, Lausanne, 1966,

p. 58, no. 65, ill.



Haute tête en pomme de terre
30-31 August 1951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left
Oil on hardboard
81 x 65 cm | 31.9 x 25.6 in

PROVENANCE

Pierre Matisse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Acquavella Galleries, New York, United States
Private collection, New York, United States
Private collection, London, United Kingdom

LITERATURE

Max Loreau, *Catalogue des travaux de Jean Dubuffet, Fascicule VII : Tables paysagées, paysages du mental, pierres philosophiques*, Jean-Jacques Pauvert Publishing, Lausanne, 1967, p. 54, no.76, ill.
Mechthild Haas, Dietrich Reimer Verlag, *Jean Dubuffet: Materialien für eine 'andere Kunst' nach 1945*, Berlin, 1997, p. 67, no. 1, ill.



Elément bleu XII
30 June 1967

Monogramm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side
Transfer on polyester resin
Unique piece
200 x 96 x 10 cm | 78.7 x 37.8 x 3.9 in

PROVENANCE

Beyeler Gallery, Basel, Switzerland & Galerie Jeanne
Bucher, Paris, France
Georges Braunschweig collection, La Chaux-de-Fonds,
Switzerland, 1968
Elvire and Philippe Braunschweig collection,
Villa Turque, La Chaux-de-Fonds, Switzerland, 1975
Valerie Braunschweig collection, New York,
United States, 1992

EXHIBITED

Paris, Galerie Jeanne Bucher, *Jean Dubuffet : peintures
monumentées*, 12 December 1968 - 8 February 1969, ill.
Martigny, Fondation Pierre Gianadda, *Dubuffet*, p. 177,
no. 113, ill.
Luxembourg, Zidoun-Bossuyt Gallery, *Jean Dubuffet*,
28 September - 4 November 2017, p. 65, ill.
Geneva, Opera Gallery, *Jean Dubuffet, Pierre Soulages.
Fondamental*, 29 January - 22 February 2020

LITERATURE

Max Loreau, *Catalogue des travaux de Jean Dubuffet,
Fascicule XXIII : Sculptures Peintes*, Weber Publishing,
Lausanne, 1972, p. 81, no. 61, ill.
Gaëtan Picon, *Capitale Dubuffet*, L'Œil, no. 168, Paris,
December 1968, p. 33, no. 5, ill.



Site avec 2 personnages
10 September 1981

Monogrammed on the lower right
Acrylic on paper laid down on canvas
50 x 67 cm | 19.7 x 26.4 in

PROVENANCE

Estate of the Artist, France
Pace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Waddington Galleries, London, United Kingdom

LITERATURE

Max Loreau, *Catalogue des travaux de Jean Dubuffet, Fascicule XXXIV : Psycho-sites*, Les Éditions de Minuit Publishing, Paris, 1984, p. 81, no. 293, ill.



한스 아르통

Hans Hartung

“회화는 내게 항상 현존하는 존재였다. 저항, 정열,
리듬, 압박감으로 가득 찬 존재 말이다. 그러나
회화는 내가 그것을 포착하고, 정의하고, 박제하여
영구적인 존재로 남기고 싶을 때에만 현존하게 된다.”

«Painting has always meant for me the existence of reality,
a reality embodied by resistance, fervour, rhythm and
pressure, but which only exists for me if I capture it, define it,
immobilise it for a moment that I would like to last forever.»



한스 아르통

1904-1989

독일계 프랑스 화가 한스 아르통은 움직임에 기반한 추상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르통은 1924년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했고 이후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뮌헨 등지의 미대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가 프랑스에 정착한 것은 세계2차대전이 발발하기 몇 년 전 즈음이었다. 앙포르멜 운동과 타티슴 운동의 일부였던 아르통은 추상에 극적이고 혁명적으로 접근하면서 명성을 떨쳤고, 전후 시기에 가장 두각을 드러낸 화가 중 하나였다.

표현이 불가능한 것들을 캔버스의 표면 위로 번역한다는 것에 회의감을 품은 아르통은 그의 추상회화에서 모든 인물화적인 요소를 배제했고, 스프레이건, 빗자루, 자택과 작업실 근처에서 자라는 프랑스 남부의 올리브나무 가지와 같은 비전통적인 도구를 사용하면서 무한히 자유로운 움직임과 공간적 역동을 추구하였다. 우연과 통제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아르통의 작품세계는 사실 놀랍도록 사전에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후기 작품들은 대부분이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없던 상태에서 그려졌는데, 그럼에도 그는 이 시기에 70년에 육박하는 그의 작가활동 중 가장 격렬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며 거둬 태어난 자유로움, 에너지와 야심을 뽐냈다.

아르통의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뉴욕 MoMA, 구겐하임 미술관, 테이트 런던, 파리 퐁피두 센터,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열린 그의 주요 개인전에는 <한스 아르통: Essential> 스페인 마드리드 시르쿨로 데 베야스 아르테스 (2008), <한스 아르통: 움직임과 기법> 프랑스 생폴 드 방스 마그 재단 미술관(2008), <한스 아르통 판화전> 독일 베를린 국립미술관 판화·소묘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스위스 제네바 미술사 박물관(2010-2011), <아르통: 판화전> 스위스 제네바 미술사 박물관(2011), <한스 아르통: Fait le 29.7.89 - 그 날의 이미지들> 독일 베를린 파네만 갤러리 (2012), <한스 아르통: 제스처의 아틀리에> 브라질 상파울루 CCB (2014-15), <한스 아르통과 그의 사진> 독일 지겐 현대미술관(2016) 등이 있다.

Hans Hartung

1904-1989

Hans Hartung was a German-French painter, known for his gestural abstract style. He studied philosophy and art history at the Leipzig University in 1924, and later attended art schools in Leipzig, Dresden, and Munich. He settled in France in the years preceding the outbreak of the Second World War. Associated with the Art Informel and Taschist movements, Hartung was one of most significant post-war artists, renowned for his dramatic and innovative approach to abstraction.

Concerned with the translation of the inexpressible onto canvas, Hartung's emotional abstractions eliminated all figurative elements, pursuing such freedom of gesture and spatial dynamism with a litany of non-traditional tools, including spray guns, brooms and branches from the olive trees that grew in the grounds of his home and studio in the South of France. Balanced between chance and control, Hartung's œuvre is unexpectedly pre-meditated. His late painting, much of which was made from the confines of a wheelchair, is amongst the most vigorous of his near seven-decades-long career, presenting a renewed sense of freedom, energy and ambition.

Hartung's works are in the collections of major museums worldwide including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Guggenheim Museum, New York, Tate Gallery, London,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and the Stedelijk Museum, Amsterdam. His prominent solo exhibitions in the last decade are: *Hans Hartung: Essential*, Circula de Bellas Artes, Madrid (2008); *Hans Hartung: The Gesture and the Method*, Fondation Marguerite and Aimé Maeght, Saint-Paul-de-Vence (2008); *Hans Hartung Prints*, Museum of Prints and Drawings, National Museum of Berlin;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Musée d'Art et d'Histoire de Genève, Geneva (2010-2011); *Hartung: Prints*, Musée d'Art et d'Histoire, Geneva (2011); *Hans Hartung: Fait le 29.7.89 - Bilder eines Tages*, Galerie Fahnenmann, Berlin (2012); *Hans Hartung: L'Atelier du Geste*, CCB, São Paulo (2014-15); *Hans Hartung and Photography*, Museum für Gegenwartskunst, Siegen (2016); *Hans Hartung, la Fabrique du geste*,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2019-2020).

T1963-U22
1963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corner
Oil on canvas
81 x 65 cm | 31.9 x 25.6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Paris, France
Galleria d'Arte il Mappamondo, Milan, Italy
Private collection, Milan, Italy
Pandolfini Casa d'Aste, 16 December 2014, lot 146,
Florence, Italy
Private collection
Capitolium Art Casa d'Aste, 14 March 2018, lot 66,
Brescia, Italy

CERTIFICATE

A certificate can be provided by the Fondation
Hans Hartung & Anna Bergman



P50-1977-H2
1977

Signed and dated (wrongly dated 1975)
on the lower right
Acrylic on baryta mounted on wood
79 x 120 cm | 31.1 x 47.2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Knokke, Casino de Knokke, *Hans Hartung*, 1998

CERTIFICATE
A certificate can be provided by the Fondation
Hans Hartung & Anna Berg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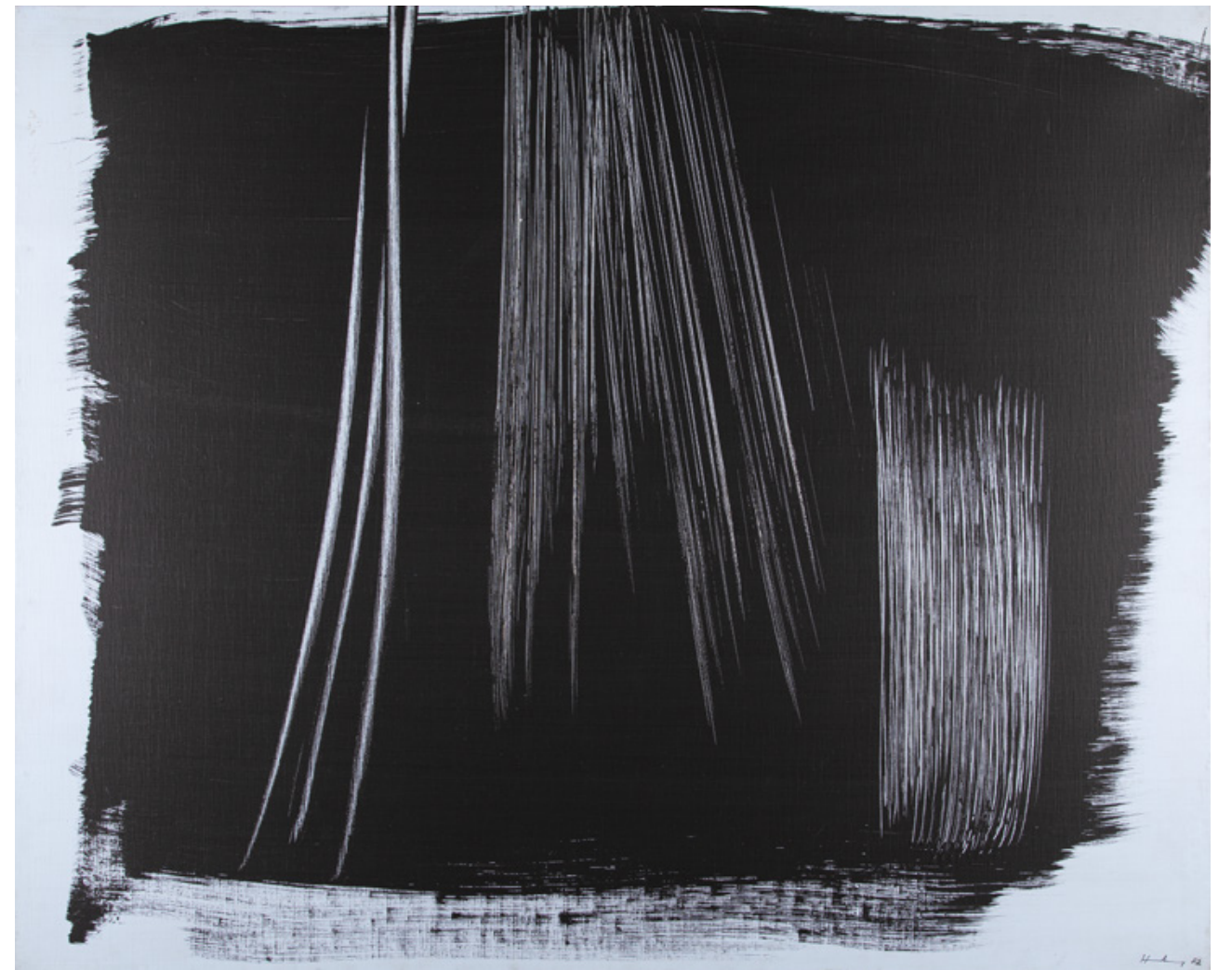
T1982-R4
1982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Acrylic on canvas
81 x 100 cm | 31.9 x 39.4 in

PROVENANCE
Galerie Sapone, Nice, France
Private collection

LITERATURE
This work will be included in the forthcoming Catalogue
raisonné currently being prepared by the Fondation
Hartung Bergman

CERTIFICATE
The Fondation Hans Hartung & Anna Bergman have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under no. CT51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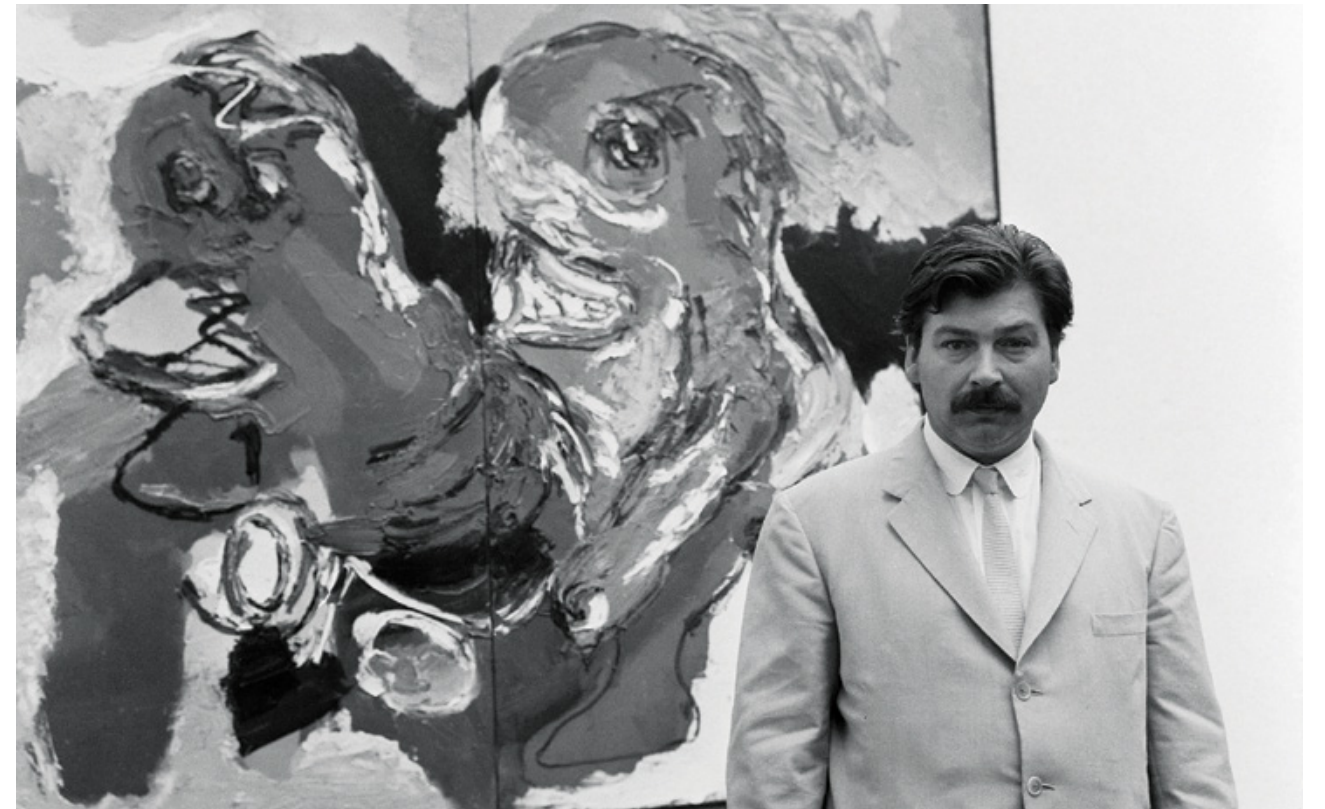


카렐 아펠

Karel Appel

“나는 예술이나 회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내가 일하는 것은 오직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물질과 다투는 것이 내게는 예술보다 훨씬 흥미롭다.”

«I do not work for art, nor for painting but because I want to. It's the struggle with the material that interests me more than art.»



카렐 아펠

1921-2006

장장 60년에 달하는 활동 기간에 걸쳐 카렐 아펠이 완성해낸 독특한 미학적 언어는 그를 20세기 후반에 가장 파급력 있던 네덜란드 화가의 반열에 올렸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921년에 태어난 그는 라익스아카데미의 학생이었고 1950년대 중에 고국을 떠나 세계를 분주히 여행하며 뉴욕과 유럽에서 작업했다. 아펠은 2006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작고했다.

아펠은 1948년 이성주의와 기하학적 추상주의에 반발하는 CoBrA 운동을 공동 창시했고, 회화, 조각, 드로잉, 무대디자인 등의 넓은 범위에 걸쳐 실험하며 그의 끝없는 혁신적 사고 능력을 뽐냈다. 아펠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스타일에 안주하거나 특정 매체나 주제에 정착하는 것을 꺼렸다. 고전적, 아카데미적 기법을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펠은 민속 공예, 어떤 구속도 찾아볼 수 없는 아이들의 그림, 그리고 정신질환 환자들의 미술을 탐구했고, 동시에 재즈의 “즉흥” 문화를 답습했다. 사실주의로부터 극도로 활달하며 감정으로 충만한 즉흥적 추상주의 사이를 오갔던 아펠은 재료에 방점을 둔 접근법을 확립하며 모든 표현의 기법이 진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아펠의 개인전 중 다수는 세계를 순회했고, 제27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네덜란드관의 작가로 참여했다. 그의 작업은 알베르티나 미술관, 온타리오 미술관, 빈센트 반 고흐 재단, 허시혼 미술관과 조각 정원, 루이지애나 근대미술관 스톡홀름 근대미술관, 근현대미술, 파리 시립 현대미술관, 뫼피두 센터 국립근대미술관, 멕시코시티 현대미술관, 상파울루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뉴욕 MoMA, 캐나다 국립미술관, 노르웨이 국립미술관, 필립스 컬렉션, 모던 피나코텍,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테이트 모던, 텔아비브 미술관 등의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외, 네덜란드의 주요 미술관은 모두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 이 중 라익스뮤지엄,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 및 헤이그 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이 특히 두드러진다.

Karel Appel

1921-2006

Across a nearly six-decade career, Karel Appel established a distinct aesthetic that made him one of the most influential Dutch artists in the latter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Born in 1921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he studied at the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Appel left the Netherlands in the 1950’s, travelled extensively and lived and worked in New York and Europe. He passed away in 2006 in Zürich, Switzerland.

A founding figure of CoBrA in 1948, a movement that rejected Rationalism and Geometric Abstraction Appel experimented widely, across painting, sculpture, drawing, and stage design, distinguishing himself for his astonishing capacity to innovate. He never settled in a signature style, media or subject. Going beyond his classical, academic training, Appel looked at folk art, as well as the uninhibited work of children and the mentally ill, whilst also drawing from jazz’s spirit of improvisation. Oscillating between realism and an emotionally charged, robustly active, and spontaneous abstraction, Appel adopted a material-oriented approach in his practice, and promoted a genuine form of expression.

During his lifetime, Appel participated in numerous one-person travelling exhibitions around the world and represented the Netherlands in the 27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in the Venice Biennale. His work is represented in public collections internationally, including the Albertina Museum, Vienna; Art Gallery of Ontario, Toronto; Fondation Vincent van Gogh, Arles;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Washington D.C.; Louisiana

Museum of Modern Art, Humlebaek; Moderna Museet, Stockholm; Musée d’Art Moderne et d’Art Contemporain, Liège;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Museo de Arte Moderno, Mexico City; Museu de Arte de São Paulo Assis Chateaubriand, São Paulo; Museum of Fine Arts, Boston;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National Gallery of Canada, Ottawa; National Museum of Art, Architecture and Design, Oslo; The Phillips Collection, Washington, D.C.; Pinakothek der Moderne, Munich;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San Francisco; Guggenheim Museum, New York; Tate Modern, London; and the Tel Aviv Museum of Art, Tel Aviv; and of course in all major Dutch museums, in particular the Rijksmuseum, Amsterdam; Stedelijk Museum, Amsterdam; and the Gemeentemuseum Den Haag, The Hague.

Untitled
1956

Signed on the lower left
Oil on canvas
65 x 50 cm | 25.6 x 19.7 in

PROVENANCE
Galerie Nova Spectra, The Hague, The Netherlands

CERTIFICATE
The artist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Le Visage
1962

Signed on the lower right
Oil on canvas
129 x 96 cm | 50.8 x 37.8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Christie's, Amsterdam, 19 May 1992, lot 342
Private collection
Sotheby's, London, 29 June 2016, lot 192
Private collection



Composition
1963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Mixed media on panel
69 x 98 cm | 27.2 x 38.6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Artcurial, Paris, 3 April 2007, lot 395
Opera Gallery
Private collection



Blue Bird
1971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left
Acrylic on paper laid down on canvas
58 x 75.6 cm | 22.8 x 29.8 in

PROVENANCE
Eberhard Auctions, Zürich, May 1988, lot 237
Karsten Hesselhog, Denmark
Private collection (acquired from the above in 2010)

CERTIFICATE
Dr. Jan Nieuwenhuizen Segaar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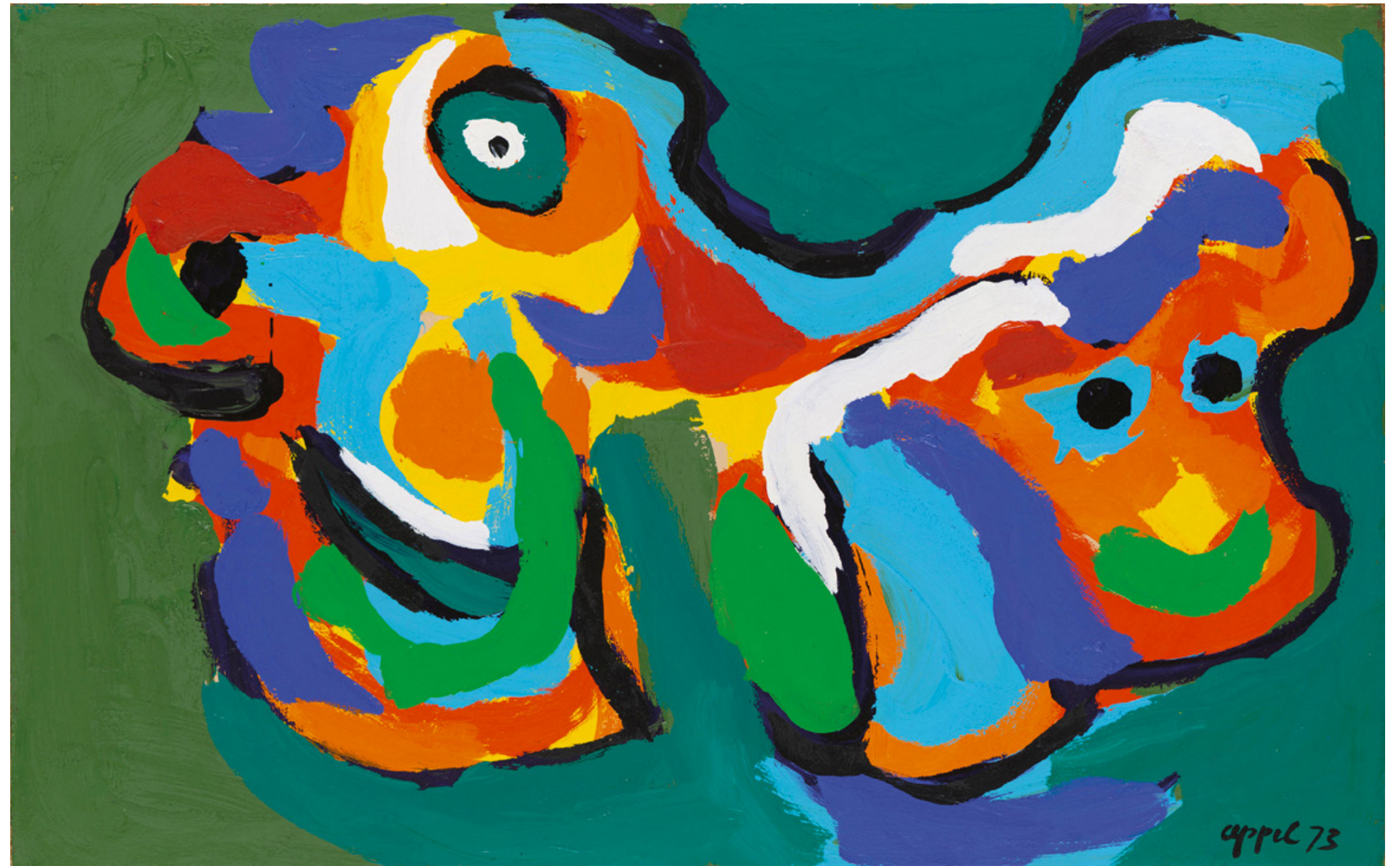


Two Heads
1973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titled on the stretcher,
signed, inscribed and dated on the reverse
Acrylic on paper laid on canvas
49 x 77.5 cm | 19.3 x 30.5 in

PROV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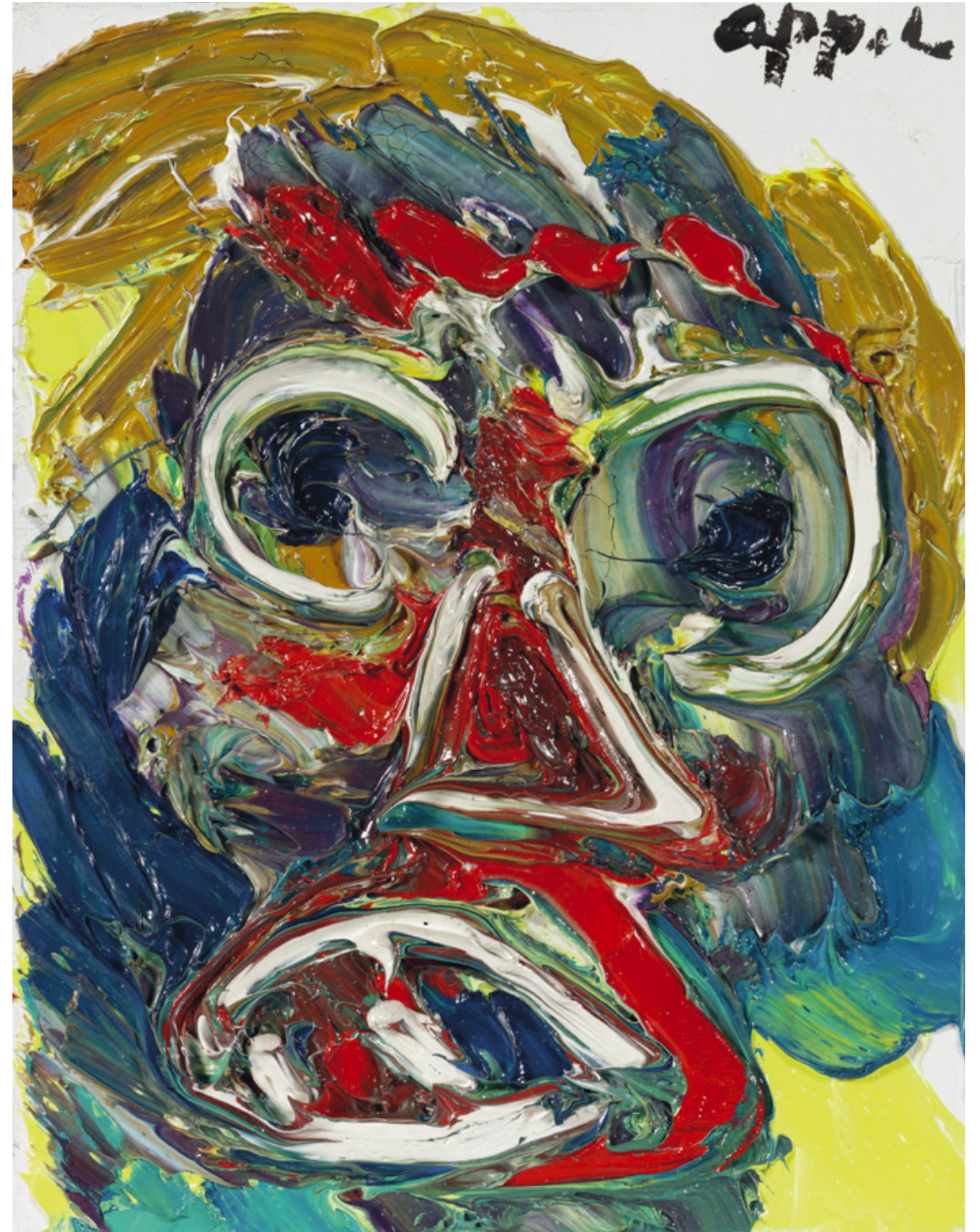
Galleria Fontanella Borghese, Rome, Italy
Galleria d'Arte Rinaldo Rotta, Genoa, Italy
Private collection, Genoa, Italy



Grim Face
1976

Signed on the upper right; titled on the stretcher
Oil on canvas
34.5 x 27 cm | 13.6 x 10.6 in

PROVENANCE
Galerie Nova Spectra, The Hague, The Netherlands
Private collection, The Netherlands (1976)
Christie's, Amsterdam, 5 June 2007, lot 223
Private collection



조르주 마티외

Georges Mathieu

“나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내 권한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세월이 나의 편이라 믿는다. 진실은 양지 위로 폭발하듯 분출될 것이고 나의 자유분방한 추상은 그에 걸맞는 승리를 누릴 것이며,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나의 추상은 가장 위대한 혼란과 가장 위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Conscious that I have accomplished my role, having done everything that was in my power to do, I know that time is on my side, that the truth will end up bursting into the light of the day, that this free Abstraction will enjoy a fatal triumph, and I even guess that it may even give rise to the greatest confusion, and to the greatest facility.”



조르주 마티외

1921-2012

조르주 마티외는 1921년 프랑스 불로뉴쉬르메르에서 태어났다. 독학한 화가이자 이론가인 그는 1942년에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마티외는 일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동 국가 등지에서도 그림을 그렸지만 대부분은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거주하며 그림을 그렸다.

마티외는 세계2차대전 이후의 파리에서 서정추상 운동을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다 크게는 앵포르멜 사조에도 기여했다. 선동가로도 악명높았던 그는 제스처로 이루어진 거의 퍼포먼스에 가까운 추상화를 그리면서 빼어난 재능을 통해 속도를 최우선시하고 어떠한 방식의 인용도 부정하며 환희의 감정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회화를 구축했다. 마티외의 작업 과정은 몇 차례에 걸쳐 영상으로 촬영되기도 했는데 전 세계에 선보여진 그의 작품들은 대형 작업으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고, 이러한 큰 규모의 작품을 그리기 위해 그는 긴 붓을 쓰거나 캔버스 위로 튜브 물감을 직접 짜내는 등의 기법을 사용했다. 빠른 속도와 즉각성이 두드러지는 그의 기법들은 그가 작업의 철칙으로 삼았던 자유분방함을 보장하는 일환이기도 했다. 마티외는 창의적인 제스처의 활용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자유분방함을 도입했고, 캘리그라피와 날것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마치 비밀 종교집단의 기호처럼도 보이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냈다. 대부분이 역사, 음악, 지리 등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그의 작품 제목들은 작품에 현학적이면서도 독특한 시적 분위기를 더한다.

마티외의 작품은 수많은 미술관에서 회고전으로 다루어졌고, 그의 작품은 시카고 미술관, 파리龐피두 센터, 워싱턴 D.C 허시혼 미술관과 조각 정원, 쿤스트뮤지엄 바젤, 쿤스트하우스 취리히, 로스앤젤레스 MOCA, 휴스턴 미술관, 뉴욕 MoMA, 파리 국립근대미술관,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테이트 런던 등 80곳 이상의 미술관 및 공공 컬렉션에 영구소장되어 있다.

Georges Mathieu

1921-2012

Georges Mathieu was born in Boulogne-sur-Mer, France, in 1921. A self-taught painter and a theorist, he began his artistic career in 1942. He travelled and painted in Japan, USA, Brazil, Argentina and the Middle-East but mostly lived and worked in the Parisian region, France where he died in 2012.

Georges Mathieu is credited with launching the Lyrical Abstraction movement and the greater trend of Informalism in post-World War II Paris. Pioneering a form of Gestural Abstraction that was close to performance, Georges Mathieu, famed-provocateur, with his dazzling brilliance, developed a form of painting which prioritise the primacy of speed, denial of references, and ecstatic state of mind. Sometimes working in front of the cameras, his work exhibited throughout the world, he was famed for his large-scale formats, which he achieved by using long brushes and applying paint directly from tubes onto the canvas. The immediacy and rapid execution of these distinct methods guaranteed the freedom with which he defined his work. He brought a new brand of freedom to the creative gesture and gave birth to a brand new style, somewhere between esoteric sign, calligraphy and raw energy. The titles of his works, often steeped in historical, musical and geographical references, add a poetic quality, both sophisticated and offbeat.

Mathieu's work has been the subject of numerous retrospectives, and is in more than eighty museums and public permanent collections, including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entre Georges Pompidou, Paris; the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Washington D.C.; Kunstmuseum Basel; Kunsthau Zürich;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the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Paris; Guggenheim Museum, New York; and the Tate, London.

Li Duan
1967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left and titled
on the stretcher

Oil on canvas

81 x 101 cm | 31.9 x 39.4 in

PROV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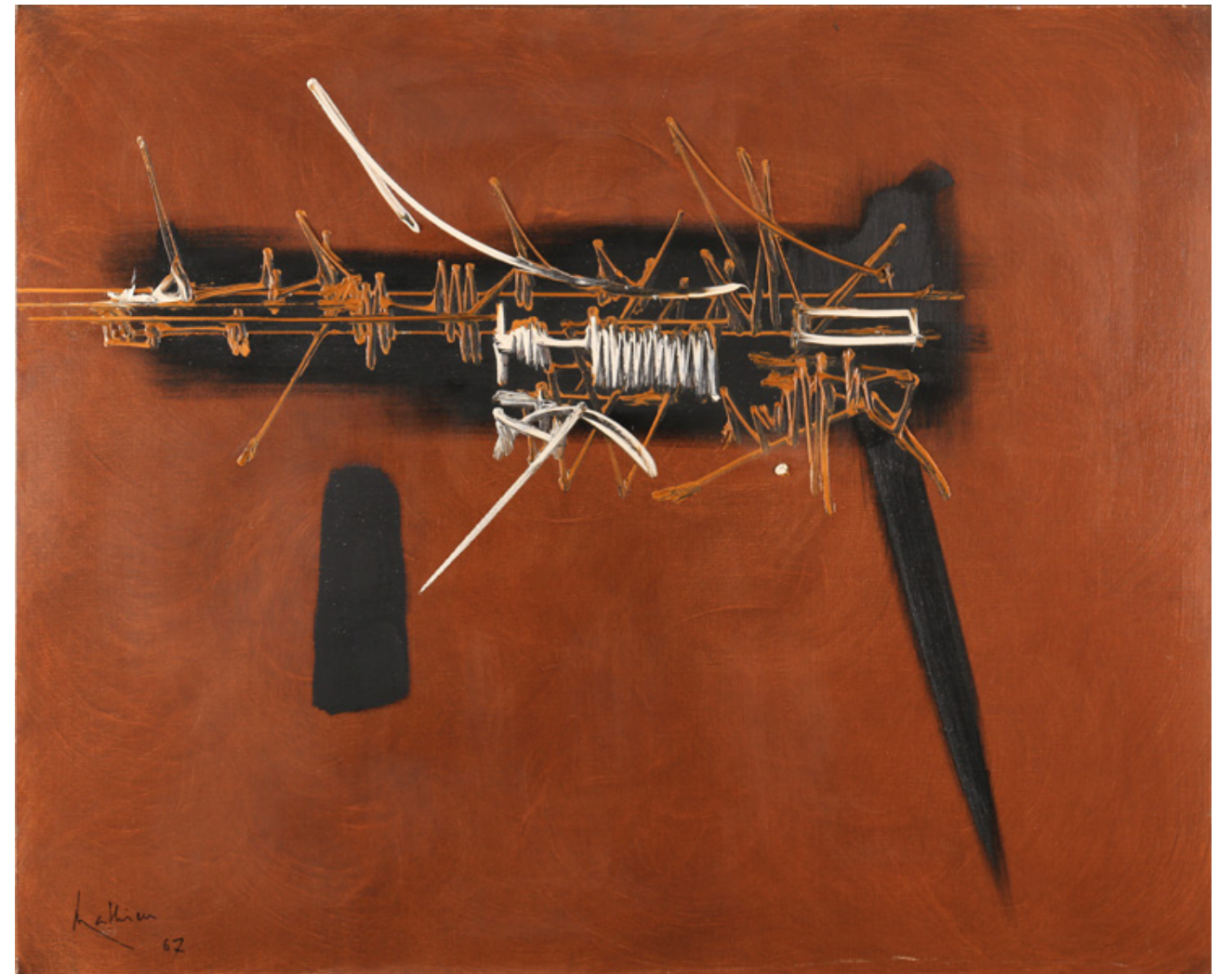
Galerie Soave, Alexandrie, Italy

Private collection, Italy

Private collection, Paris, France

CERTIFICATE

Laurence Izern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Huisne
1969

Signed on the lower right; titled and dated on the stretcher
Oil on canvas
65 x 100 cm | 25.6 x 39.4 in

PROV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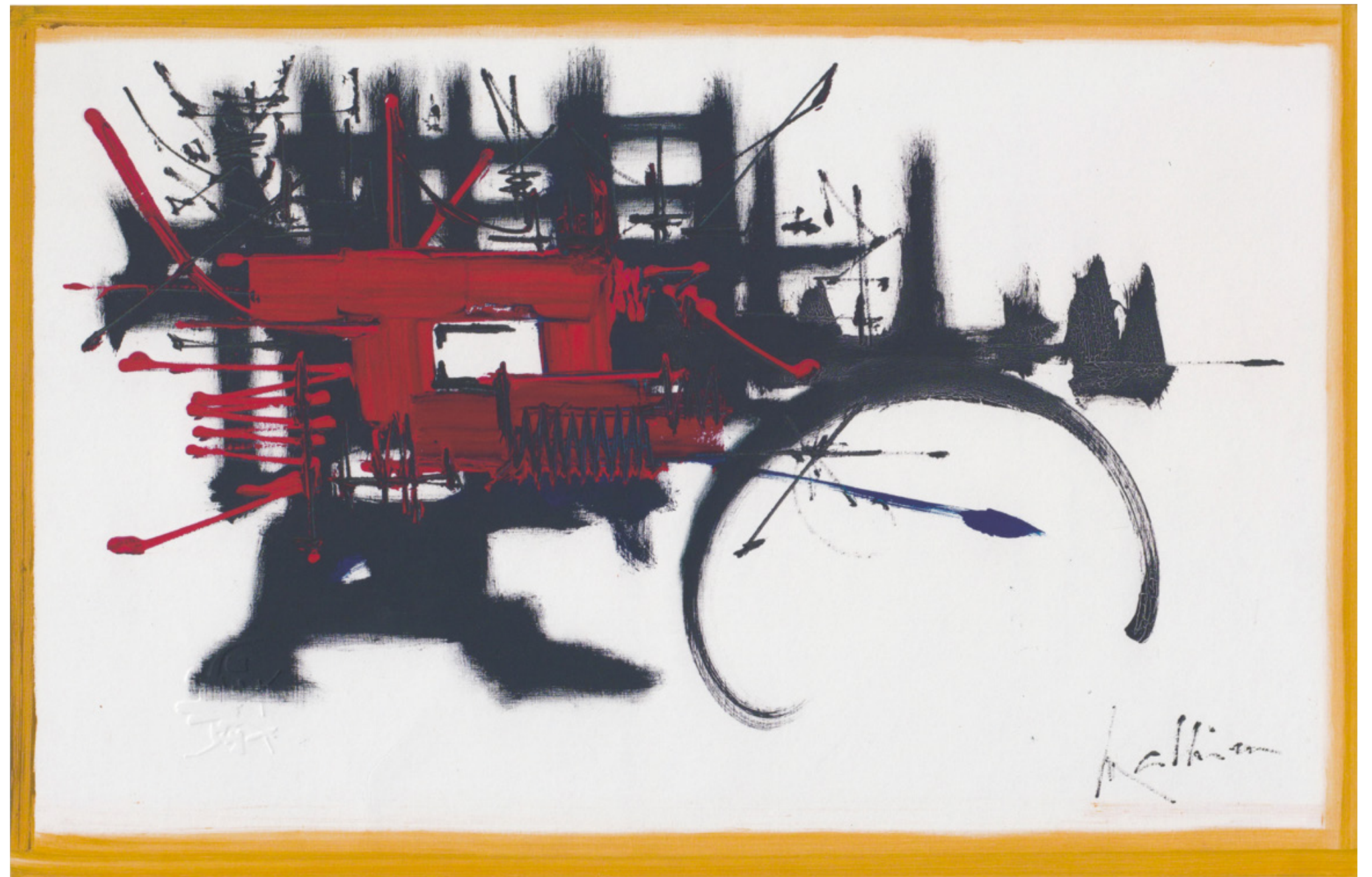
Dominion Gallery, Montreal, Canada
Private collection, Edmonton, Canada
Galerie Omagh, Paris, France
Private collection, France

LITERATURE

This work will be included in the forthcoming Catalogue raisonné being prepared by the comité Goerge Mathieu

CERTIFICATE

The Comité Georges Mathieu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Trigaudin
1970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titled on the stretcher
Oil on canvas
97 x 195 cm | 38.2 x 76.8 in

PROVE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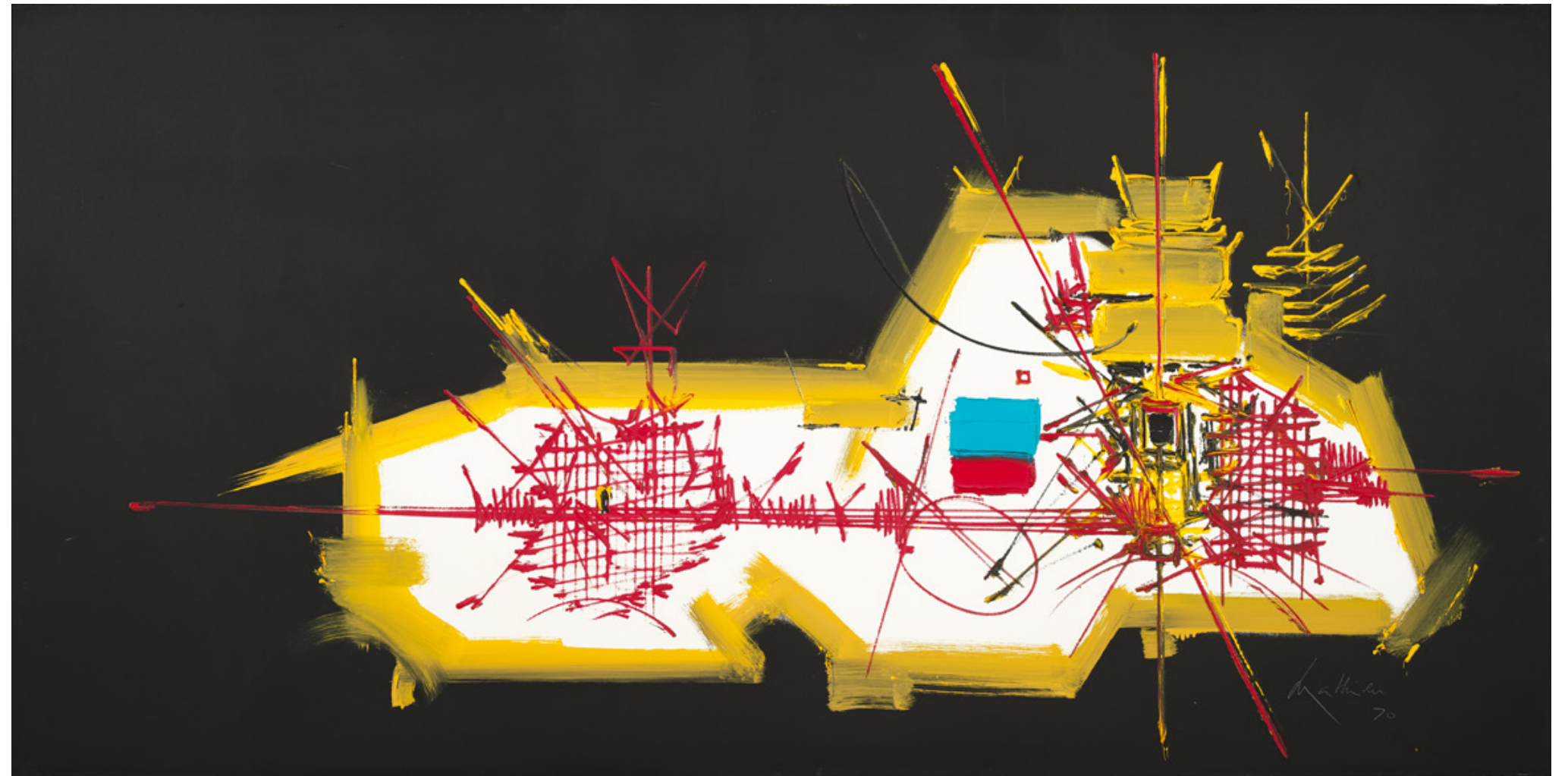
Galerie Veranneman, Brussels, Belgium
Private collection, Paris, France
Galerie B. Sebban, Paris, France

EXHIBITED

Brussels, Galerie Veranneman, *Mathieu*, 14 January - 6 February
1971, no. 4, ill. in the exhibition catalogue

CERTIFICATE

Jean-Marie Cusinberche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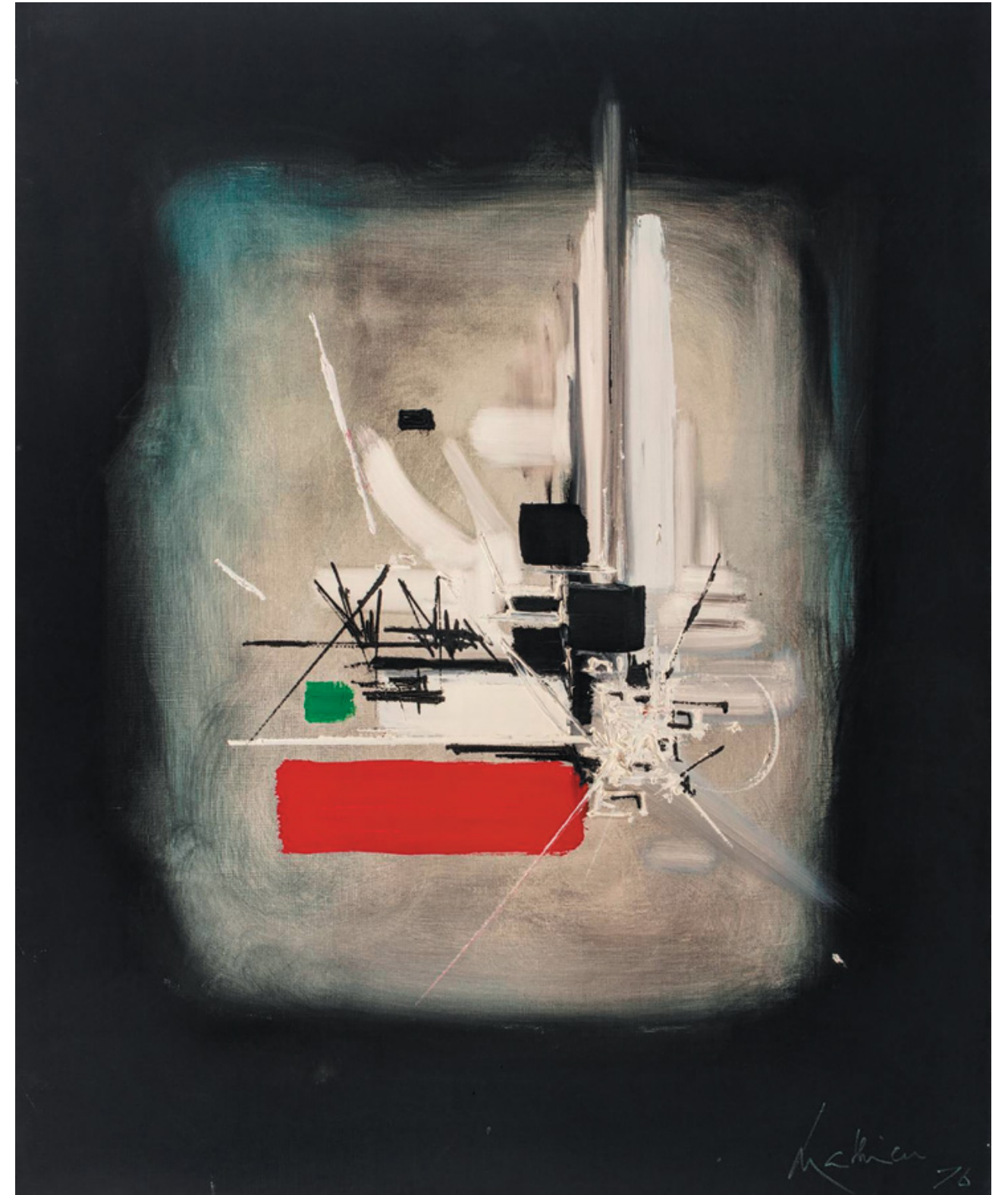


Mygdonie
1976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titled on the stretcher
Oil on canvas
100 x 81 cm | 39.4 x 31.9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Paris, France

EXHIBITED
Barcelona, Galeria Beaubourg, *Mathieu, Homenaje a España*, 23 November 1976 - 20 January 1977, p. 17, ill. in the catalogue



장 폴 리오펔

Jean Paul Riopelle

“이제 우리에게는 통용되는 상징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관계가 필요하다. 내게는 자연과의 접촉이 이러한 관계로 기능한다. 자연과의 접촉이란 자연을 기록하는 것이다. 작품을 만드는 데에는 수천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내게는 드로잉이 가장 편리하다. 돌을 그리고 싶을 때에는 돌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람의 머리를 그리고 싶을 때에는 머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식으로....”

«Since there is no longer any common symbolic language, another relationship is needed. For me, this relationship is my contact with nature. Now, contact with nature means documenting nature. There are a thousand ways to create a work of art, but for me the simplest is drawing, and learning about stones if I want to draw stones, or about heads if I want to draw heads.....»



장 폴 리오펠

1923-2002

장 폴 리오펠은 국제적인 명성과 권위를 누린 첫 캐나다 작가 중 한 명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23년에 태어난 리오펠은 1940년대에 몬트리올 에콜 데 보자르 및 에콜 데 뫼블르에서 수학했다. 학생 시절 그는 레오토마티스트 (Les Automatistes)라고 불린 캐나다 화가 집단의 일부로 활동했는데, 초현실주의와 궤를 같이했던 이들 집단은 체제, 전통, 종교적 권위를 부정했고 무의식에서 솟아 나오는 영감을 비구상적인 회화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리오펠은 세계2차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로 여행했고 그곳에서 미국 화가 조안 미첼과 동거하는데, 그와 미첼의 작품 중 특히 1960년대의 작품들에서 두 작가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두드러진다. 리오펠은 1970년대에 다시 퀘벡으로 돌아왔고 2002년 캐나다 킬르-오-그휴에서 사망했다.

두꺼운 임파스토와 강렬한 채도의 회화로 널리 알려진 리오펠은 추상표현주의의 유럽 쪽 갈래인 앵포르멜 운동의 핵심 작가 중 한 명이었다. 초기에는 서정추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작품에서 캘리그라피적인 요소가 강해지면서 재분류된다. 1950년 초 즈음 리오펠은 나이프로 캔버스에 물감을 직접 펴 바르는 고유의 화풍을 확립한다. 캔버스 위에서 물감을 움직이는 그의 기법은 기하학적 부피와 다양한 질감, 변화무쌍한 색채와 대비를 만들어냈다. 또한, 리오펠의 임의적인 추상 기법은 즉시성과 자동성을 중요히 여긴 결과이기도 했다.

리오펠은 생애 동안 광범위한 세계적 명성에 도달했고 세 차례의 베니스비엔날레 및 상파울루비엔날레에 참여했다. 그는 1950년대부터 회고전으로 조명되었고, 쥘른 쿤스트페라인, 온타리오 캐나다 국립미술관, 퀘벡 국립미술관, 파리 매그 갤러리 등이 그의 회고전을 열었다. 2006년에는 퀘벡 국립미술관이 대규모의 리오펠 회고전을 열었는데 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예르미타시 미술관과 마르세유 칸티니 미술관으로 순회했다. 리오펠의 작품은 시카고 미술관, 워싱턴 D.C. 허시혼 미술관과 조각 정원, 브루클린 미술관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등의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Jean Paul Riopelle

1923-2002

Painter Jean Paul Riopelle was among the first Canadian artists to achieve international fame and recognition. Born in Montreal, Canada in 1923, he studied at the École des Beaux Arts and the École de Meuble during the 1940's. During his studies, he became associated with the group of Canadian painters known as *Les Automatistes*, a group adjacent to the Surrealists that rebuked establishment, tradition and religious authority, favoring instead the subconscious as the driving force behind non-figurative painting. He traveled to France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where he lived with the American painter Joan Mitchell. Their work from the 1960's especially, shows their mutual influence on each other. Riopelle returned to Quebec in the 1970's. He died in 2002 at l'Isle-aux-Grues, Canada.

Known for his expressive works of thick impasto and chromatic intensity, Riopelle was a key member of the Art Informel movement (the European variant of Abstract Expressionism). He was associated initially with the Lyrical Abstraction wing, before becoming more calligraphic in style. By the early 1950's, Riopelle developed his signature style of applying paint directly to the canvas by smearing it with a palette knife. His artistic gesture created an intriguing myriad of geometric volumes and kaleidoscopic surfaces of color and brilliance. This improvisatory form of abstraction was closely associated with an emphasis on the spontaneous and automatic.

Riopelle enjoyed widespread international fame before his death; he participated in three Venice Biennales and the São Paulo Biennial. The Kölischer Kunstverein, Cologne; the National Gallery of Canada, Ontario; the Musée du Québec; and the Galerie Maeght, Paris, have held major retrospectives of his work beginning in the 1950s. The Musée des beaux-arts du Québec held a major retrospective of Riopelle's work in 2006 that was shown at the State Hermitage Museum, St. Petersburg, and at the Musée Cantini, Marseille. Riopelle's works are in the public collections of The Art Institute Chicago; the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Washington D.C.; the Brooklyn Museum an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and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among others.

Two Shinnelock Whalers
1960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Oil on canvas
101.6 x 114.3 cm | 40 x 45 in

PROVENANCE

Galerie Jacques Dubourg, Paris, France
Dominion Gallery, Montreal, Canada
Christie's, London
Private collection Italy
Jerome Zodo Gallery
Opera Gallery
Private collection

EXHIBITED

Spoletto, Palazzo Collicola, *La Peinture moderne, 25 années de peinture au Canada-français*,
5^e festival des 2 mondes, 1962, no. 6
Venise biennale, 1962

LITERATURE

Revue Vie des Arts, Autumn 1974, p. 4
Guillaume Corneille, catalogue de biennale, 1962
This work will be included in the forthcoming Jean Paul Riopelle Catalogue raisonné being prepared by Yseult Riopelle under temporary no. 1960.052H

CERTIFICATE

Yseult Riopelle, the daughter of the artist, has issued an attestation of this work under no. 151-CA-AM



Carrefour
1961

Signed on the lower right
Oil on canvas
59.5 x 72.8 cm | 23.4 x 28.7 in

PROVENANCE

Pierre Matisse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Private collection
Sotheby's, London, 26 October 2000, lot 142
Private collection
Academia Fine Art, Monaco, 6 August 2011, lot 181
Private collection

LITERATURE

Yseult Riopelle & Tanguy Riopelle, *Jean Paul Riopelle*
Catalogue raisonné, Tome 3, 1960-1965, Hibou publishing,
Montreal, 2009, p. 121, ill.

CERTIFICATE

Yseult Riopelle, daughter of the artist, issued an attestation
for this work under no. 231-CA-ANT



22 Décembre
1959

Signed and dated on the lower right;
signed, titled and dated on the stretcher
Oil on canvas
130 x 195 cm | 51.2 x 76.8 in

PROVENANCE

Lucien Lefebvre-Foinet, Paris, France
Private collection, France
Christie's, London, 7 March 2018, lot 163
Private collection



Untitled
1964

Signed
Oil on canvas
73 x 116 cm | 28.7 x 45.7 in

PROVENANCE
Galerie Jacques Dubourg, Paris, France
Private collection, Paris, France
Jean-Max Delvaux, Paris, France, Tableaux Modernes, Art
Décoratifs du XX^e Siècle, 23 November 2017, lot 19
Private collection, France

LITERATURE
This work is inscribed in the addendum of the online
Catalogue raisonné under number 2261



니키 드 생팔 — Niki de Saint Phalle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보여 줄 것이다.
나의 마음과 감정. 초록색-빨간색-노란색-보라색.
증오-사랑-웃음-두려움-다정함.”

—
«I will show everything. My heart, my emotions.
Green - red - yellow - purple.
Hate - love - laughter - fear - tenderness.»



니키 드 생팔

1930-2002

프랑스계 미국 화가 니키 드 생팔은 1930년 프랑스 뇌이쉬르센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성장했다. 독학 화가인 그녀는 프랑스, 스위스, 미국을 오가며 작업했고, 2002년 캘리포니아 라호야에서 작고했다.

생팔은 1964년 그녀의 남편이었던 화가 장 텅겔리를 통해 누보레알리즘 운동의 일원이 되었다. 생팔이 처음으로 세계의 이목을 끈 건 분노와 폭력을 표현하는 아상블라주 작업을 통해서였는데 그녀는 작품 제작에 실제 총기를 동원하기도 했다. 생팔은 아상블라주 시기를 거쳐 <나나> 연작으로 들어서는데, 동물, 괴수, 여성의 몸을 천진하고, 유쾌하고, 화려하게 표현한 이들 대형 조각품들은 초창기에 양모, 털실, 파피에마세와 철사 구조물로 만들어지다 이후 폴리에스테르로 제작되었다. 풍만한 여성의 몸을 그린 이 조각품들은 그녀에게 현대 사회 속에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이상적인 전형을 상징했다.

생팔의 우람한 작품들은 파리 퐁피두 센터 옆 스트라빈스키 분수(1983), 이탈리아 토스카나 남부의 가라비치오 타로 공원(1998), 하노버 헤렌하우젠 정원의 <동굴>(2003), 캘리포니아 여왕 조각 공원(2003) 등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도시와 미술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런던 코톨드 인스티튜트, 뉴욕 MoMA, 미니애폴리스 워커 아트 센터, 니스 현대 미술관 등이 그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Niki de Saint Phalle

1930-2002

Niki de Saint Phalle is a French-American artist who was born in 1930 in Neuilly-sur-Seine, France, and grew up in New York. A self-taught artist, she lived and worked between France,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She died in 2002 in La Jolla, California, USA.

Niki de Saint Phalle was part of the *Nouveaux Réalistes* group, which she joined in 1964 through her husband, artist Jean Tinguely. She first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for angry, violent assemblages, which she had shot using firearms. These evolved into Nanas, light-hearted, whimsical, colourful, large-scale sculptures of animals, monsters, and female figures, first made of wool, yarn, papier-mâché and wire scaffoldings and later made of polyester. These voluptuous female figures served to represent the ideal archetype for women in modern society, and can be seen in cities and museums all over the world.

Saint Phalle's monumental works are exhibited at the Stravinsky Fountain, next to the Centre Georges Pompidou in Paris (1983), the Tarot Garden in Garavicchio, South of Tuscany (1998), the Grotto in the Royal Garden Herrenhausen of Hannover (2003), and Queen Califia's Magic Circle in California (2003). Her works are also held in the collections of the Courtauld Institute of Art in London,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the Walker Art Center in Minneapolis, and the Musée d'Art Moderne d'Art Contemporain in Nice, among others.

White Tree
1972

Resin polyester joined on a wood panel
244.5 x 122 x 22 cm | 96.3 x 48 x 8.7 in

PROVENANCE
Alexander Iolas Gallery, New York, United States
Collection of Brooks Jackson Inc., New York, United States
Samy Kinge Gallery, Paris, France
Private collection, United Kingdom

CERTIFICATE
The Niky Charitable Art Foundation has confirmed
the authenticity of this work under no. 04-1972B-548.



Nana Machine
1976

Painted polyester, iron base with electric engine
Edition of 150
44 x 15 x 15 cm | 17.3 x 5.9 x 5.9 in

PROVENANCE
Private collection, France



Sphinx
1989

Polyester
Edition of 10
28 x 43 x 29 cm | 11 x 16.9 x 11.4 in

PROVENANCE
Sotheby's, London, 30 June 2000, lot 207
Collection of Gerard L. Cafesjian, New York, United States
Private collection, Paris, France



Ange vase
1993

Painted polyester, iron base
Edition of 50
99 x 57 x 32 cm | 39 x 22.4 x 12.6 in

PROVENANCE
Galerie Vogel Heidelberg, Germany
Private collection, Baden-Wuerttember, Germany
Private collection, Paris, France



Index

Index



p. 19
Jean Dubuffet, Petit bouquet de fleurs, 1943



p. 21
Jean Dubuffet, Haute tête en pomme de terre, 1951



p. 23
Jean Dubuffet, Elément bleu XII, 1967



p. 25
Jean Dubuffet, Site avec 2 personnages, 1981



p. 31
Hans Hartung, T1963-U22, 1963



pp. 32-33
Hans Hartung, P50-1977-H2, 1977



p. 35
Hans Hartung, T1982-R4, 1982



p. 41
Karel Appel, Untitled, 1956



p. 43
Karel Appel, Le Visage,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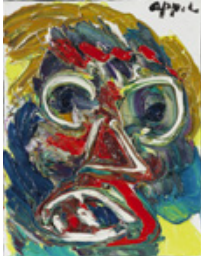
pp. 44-45
Karel Appel, Composition, 1963



pp. 46-47
Karel Appel, Blue Bird, 1971



pp. 48-49
Karel Appel, Two Heads,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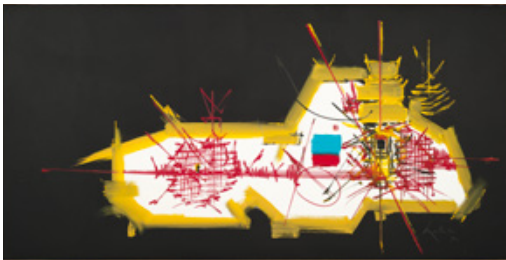
p. 51
Karel Appel, Grim Face, 1976



p. 57
Georges Mathieu, Li Duan, 1967



pp. 58-59
Georges Mathieu, Huisne,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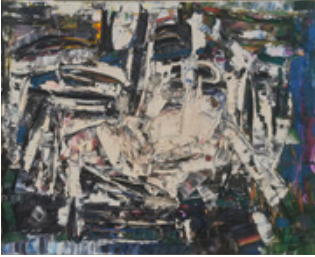
pp. 60-61
Georges Mathieu, Trigaudin, 1970



p. 63
Georges Mathieu, Mygdonie, 1976



p. 69
Jean Paul Riopelle, Two Shinnebock Whalers, 1960



p. 71
Jean Paul Riopelle, Carrefour,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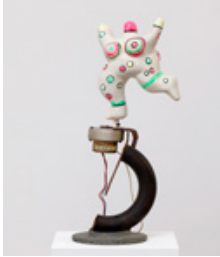
pp. 72-73
Jean Paul Riopelle, 22 Décembre, 1959



pp. 74-75
Jean Paul Riopelle, Untitled,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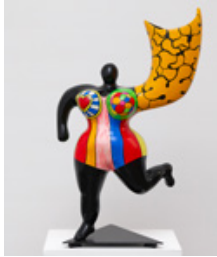
p. 81
Niki de Saint Phalle, White Tree, 1972



p. 83
Niki de Saint Phalle, Nana Machine, 1976



pp. 84-85
Niki de Saint Phalle, Sphinx, 1989



p. 87
Niki de Saint Phalle, Ange vase, 1993

Published by Opera Gallery
All rights reserved. Except for the purpose of review,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COORDINATORS
Albane Jerphanion
Yoonju Kim

AUTHOR
Chase Doolan

DESIGNER
Albane Jerphanion

PROOFREADERS
Nadine El Guiddawy
Aurélie Heuzard
Albane Jerphanion
Sarah Melki
Léa Sitbon

PRINTER
Hyunjin Creative

